

‘1의과대학-2대학병원’에 ‘공동의대’까지 투트랙 추진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방식’ 발표

입학정원 200명 이내·1천-1천200병상 규모 소요 예산 7천억원
지역사회 의견 반영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공동의대’ 검토
김지사 “갈등 최소화 방안” 공동의대에 방침…‘공’은 대학으로

전남권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식이 ‘1의과대학-2대학병원’ 신설 뿐만 아니라, ‘공동의대’ 설립까지 투트랙 추진 방향으로 결정됐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안 중 하나인 ‘1대학-2병원’ 방식과 함께,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동·서부 지역 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마련될 지 향후 양 대학의 후속 논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진’ 용역 주관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A.T커니코리아)·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1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설립 방식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용역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용역사는 6차례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8월30일-9월3일 도민 2천2명 대상),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결과를 토대로 2개 기본안(의대 1곳 선정 후 동·서부 2개 대학병원 신설,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일 지역 설립) 중 ‘1의대-2병원’을 설립 방식으로 결정했다.

의과대학 선정 후 동·서부 지역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 동시 설립하는 방식이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명 이내로 대학병원은 2개소 합산 1천-1천200병상 규모다.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하되 병원별 구체적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2개 대학병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립된다.

소요 예산은 1천병상 기준 7천억원(1병상 당 7억원) 이상이다. 통상 국비 지원은 20-25% 수준으로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전남도가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감안, 병원 설립 비용의 3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용역사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정부, 도의회, 대학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가 지원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대미추천 대학의 경우의대에 버금가는 수준의 ‘첨단의과학연구소’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의대·대학병원과 협조해 ‘첨단의과학 연구·교육·실습(AI 기반 의학, 디지털트윈 등), 의료바이오 연구 기능을 수행한다.

미추천 지역 발전 계획은 향후 대학이 선정된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용역사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도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용역사는 “도민공청회, 전문가 심층면접 등 의견 수렴 과정과 지역 정치권에서 공동의대 방식을 제안했다”며 “정부에서 주도(6) 1국립대를 지향하고 있어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에 대한 양 대학의 의사를 빠른 시간 내 공식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역사는 양 대학에서 확약서 등을 통해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에 합의하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용역 종료 시까지 설립 방식과 미추천 대학·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도민과 대학, 전문가 등 지역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해 도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사가 공개한 설립방식 적합도 도민 여론조사 결과, 54.8%가 ‘1의대-2대학병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동일 지역 의대·대학병원 설립’의 경우 45.4%가 선택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웃 나와라! 모 나와라!’ 의정결등 정기화로 응급의료체계 등 의료대란의 불안감 속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잦아지면서 명절 연휴 동안 “아프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생이 실종된 여수선한 정국을 뒤로 하고 모처럼 가족·친지·지인들과 넉넉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됐으면 한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민속놀이 체험 한마당에 참여한 아이들이 신나게 윷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김애리 기자

“고향 갑니다” 송정역 등 이른 귀성객 ‘복적’

버스터미널도 붐벼…광주공항 가족 단위 제주 여행객 많아

“힘들수록 생각나는 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미처 못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오전 광주송정역엔 이른 귀성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대합실 곳곳에서는 열차를 기다리며 가족·자녀와 통화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다녔다. “엄마, 지금 열차 기다리고 있어요. 급한데요”, “13분 뒤에 도착한다고요? 조심해서 내려와” 등 설렘을 담은 대화들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30대 정모씨는 “1년여 만에 광주에 왔다. 영상 통화로만 부모님을 뵈었는데 오늘은 직접 가서 얼굴도 보고 연휴 기간 안마

도 해드리고 싶다”며 양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버스를 타고 내리는 이들로 북적였다. 무인발권기에서 예매 승차권을 뽑은 한 자매는 각각 사과 상자와 홍삼 선물을 손에 들고 목포행 버스를 기다렸다. 이들은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빠 산소도 다녀오자”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다. 광주공항 역시 닷새 간의 휴일을 제주에서 보내려는 가족 단위 여행 인파가 가득했다.

한편, 추석 연휴(14-18일)는 귀성·귀경길 모두 17일 정오께 차량 정체기가 가장 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티맵모빌리티가 최근 6년 간의 명절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석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결과, 추석 당일 정오 출발 기준 서울→광주 구간은 약 7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성학 기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임직원 일동

13일(금)	14일(토)	15일(일)	16일(월)	17일(화)	18일(수)
☀️	☀️	☀️	☁️	☁️	☀️
24/34	24/34	25/34	25/32	25/32	24/32

*9월14일-18일 신문 쉽니다.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 ▶ 기획...‘위기의 전남 쌀 구하기’ 9면
- ▶ 축제 통합 ‘G-페스타 광주’ 10면
- ▶ 연휴 가볼만한 곳...전남 10選 11면
- ▶ 광주보건대학교·목포대학교 12-13면
- ▶ KIA V12를 향해...‘니맘시산다’ 14면
- ▶ 연휴 응급의료·교통 종합대책 15면
- ▶ 가족과 함께 문화나들이 16면
- ▶ 비엔날레 파빌리온 옛보기 17면
- ▶ 박계영의 ‘추석 나눔음식’ 18면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전라남도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금융기관(농협) 창구 대면 기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기부액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쌀, 한우, 굴비, 김치, 홍어, 배, 전복 등 (300여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전라남도